

##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 등 논의

- 한미 간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 대응계획 논의 -
-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한-영 FTA 개선협정 추진계획 공유 -
- 해외건설 분야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검토 -
- 대외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과제에 대해 자유 토의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sup>-1</sup>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①<sup>-2</sup>IEEPA 소송 관련 동향, ②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③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④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문체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법무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지재처·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였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과제를 큰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자유토의를 주재하였다.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 [ 총 괄 ]

|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br>대외경제총괄과 | 책임자<br>담당자<br>담당자 | 과 장<br>사무관<br>사무관 | 배병관<br>박영우<br>김승환 | 044-215-7610<br>paxkoreana@korea.kr<br>95ksh@korea.kr |
|-------|------------------|-------------------|-------------------|-------------------|-------------------------------------------------------|

## [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관련 ]

| 안건                  |                  | 담당자                           | 연락처                                                     |
|---------------------|------------------|-------------------------------|---------------------------------------------------------|
| ❶-1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 산업부<br>FTA이행팀    | 정성화 팀 장<br>서준호 사무관            | 044-203-5640<br>joonhosuh@korea.kr                      |
| ❶-2 IEEPA 소송 관련 동향  | 산업부<br>통상법무기획과   | 이원희 과 장<br>민한빛 서기관            | 02-203-5940<br>tabby84@korea.kr                         |
| ❷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 산업부<br>자유무역협상총괄과 | 손호영 과 장<br>박태현 사무관            | 02-203-5830<br>pth76767@korea.kr                        |
| ❸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 국토부<br>해외건설정책과   | 이혜선 과 장<br>정원림 사무관<br>정찬목 사무관 | 02-201-3516<br>gardenlim@korea.kr<br>jungcm623@korea.kr |
| ❹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 기재부<br>대외경제총괄과   | 배병관 과 장<br>김상형 사무관            | 044-215-7610<br>sanghyeong@korea.kr                     |



##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12.12일)

□ 지금부터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

-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관세협상을 이뤄냈습니다.
- 그 후속 조치로 양국은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

- 그리고, 2021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에도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

- 다음으로,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 전략 ]

-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히 대외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과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금일 나온 의견들은 향후 새정부 대외경제전략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 마무리 및 참석부처 당부 ]

-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외경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